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4년 3월 23일 (토) 제 1962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명목상 교인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선교한국의 희망을 찾아서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 Biblical Perspectives on Evangelism(Abingdon, 1993)에서 구약 관점의 전도 대상자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 바깥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는, 가장 전형적인 전도 과정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이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들으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광경(느헤미야 8장)은 이름뿐인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는 장면이다. 이는 바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의 전형이다. 브루그만이 말하는 세 번째 전도 대상은 믿음의 자녀들이다. 그것은 사랑받는 자녀들이 믿음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신앙이 후대에게 전수되지 않고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은 바로 명목상 기독교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세 유형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명목상 기독교를 형성하는 가장 주된 집단이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교인들, 그리고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교회의 자녀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중요한 복음 사역의 대상이다. 이번 한국의 명목상 기독교 현상에 관한 조사를 보면 눈에 띄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연령이 낮을수록 명목상 교인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명목상 교인의 연령별 비율이 20대는 50.1퍼센트, 30대는 41.2퍼센트인데, 40대 이상에서는 30퍼센트대로 나온다. 이는 모태신앙인이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들의 경우 주체적인 신앙 결단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명목상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브루그만이 언급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성인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두 번째 특이한 결과는 한국에서 명목상 교인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히 기독교 가정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명목상 교인들에게 처음 교회에 출석한 시기를 물으니, 비명목상 교인에 비해서 훨씬 높은 응답률을 보인 시기는 '결혼 후'였다. 명목상 교인의 19.5퍼센트가, 비명목상 교인의 9.9퍼센트가 결혼 후 처음 교회 출석을 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글 "가족적 기독교: 우려와 희망"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로 인해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많음을 보여 준다. 또한 신앙 그 자체보다는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는 명목상 교인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교회를 선택한 이유에서도 비명목상 교인들은 설교 때문이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지만, 명목상 교인들은 가족이 다니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명목상 기독교 조사에서 나타난 세 번째 특이점은 명목상 교인들의 비율이 중형 규모의 교회들에서 더욱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중형 규모의 교회들(100명 이상 2,000명 미만)에서 명목상 교인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약 43.5%). 반면 2,000명 이상의 대형교회 출석한다는 명목상 교인은 34.7퍼센트, 100명 미만의 소형 교회에 출석하는 명목상 교인은 약 35.3퍼센트로 나타났다. 명목상 교인을 산출하는 여러 조건(20회 이상)을 대입해 봐도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에서 중형교회보다 비율이 낮은 것은 일관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일단, 상당히 다양한 신앙 양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대형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도전을 자주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순 없지만, 성장하고 있는 대형교회라면 좀 더 생동감 있는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3면으로 계속〉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을 해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굳은 마음도 열어주실 수 있다

"우리 딸이 믿음을 버리고 있어요. 우리와도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해를 끼치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편지까지 썼어요. 부모로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프게도 이건 해체와 관련해서 듣는 아주 흔한 이야기다. 기독교 신앙의 해체와 관련해서 우리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목회자들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그들과 다시 소통하고 연결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해체 이해하기

오늘날 문화에서 '해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해체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 해체는 하나같이 다 독특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 관한 것이다.

성경에 해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성경은 신앙 해체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한다. 따라서 지금 해체 과정을 겪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성경이 그들을 묘사하는 다섯 가지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면으로 계속〉

3면
시 론
민경엽 목사

4면
푸른초장
김동권 목사

13면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강태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SBS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발행인 칼럼

가시관과 못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왕은 면류관을 쓴다. 찬란하고 호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자신이 왕임을 한껏 드러낸다. 우리 예수님은 왕들 중의 왕,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셨다. 얼마나 황홀한 면류관이실까. 그런데 잠깐.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었다. 아주 생소한 면류관이었다. 놀랍게도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는 찌르는 것이다. 가시는 고통이다. 그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시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다.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묵묵히 쓰신 이유가 있으시다. 찬송가에서 명백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그렇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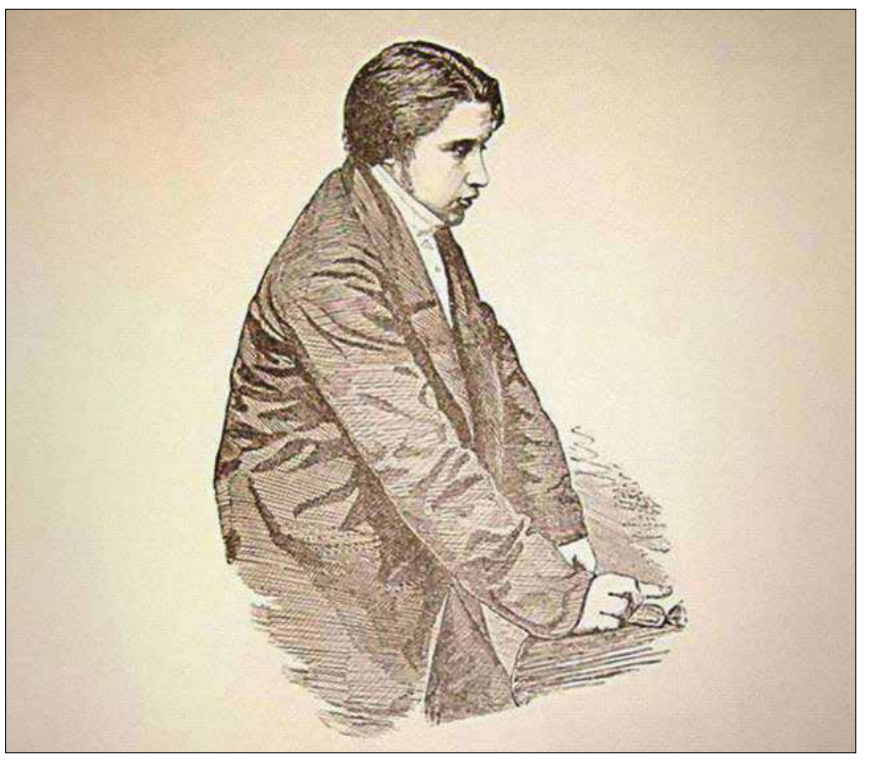
"그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천 년 전 예루살렘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아주 이른 아침에 거칠게 생긴 로마 군인이 들어와 아주 커다랗고 뾰족한 못을 찾았다. 마침 한 구석에 처 받아둔 뾰족한 큰 못이 생각났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녹슨 큰 못 세 개가 있어 내보였다. 군인은 그것이면 되었다고 돈은 던지듯, 못은 빼앗듯 가져갔다. 철물점 주인은 안 팔리던 못을 팔게 되어 수지맞았다고 생각하며 녹슨 세 개의 못을 가지고 뒤돌아가는 군인에게 궁금해서 물었다. "그 녹슨 못을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군인이 그 주인을 바라보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려고 그런다. 왜? 뭐가 잘못됐어?" 철물점 주인은 화들짝 놀랐다. 자기가 판 그 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사용하려하다니. "이봐요, 군인양반. 안 됩니다. 내가 판 그 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다고요? 그것만은 안 돼요. 돈은 여기 있으니 제발 그 못을 돌려주세요." 군인은 싸늘한 표정으로 말하며 가던 길을 갔다. "한 번 팔았으면 끝난 거지 뭘 물러달라는 거야!"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골고다 언덕에서 망치 소리가 철물점 주인의 귀에 들려왔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기가 판 녹슨 못을 망치로 내리치는 소리였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그 철물점 주인의 가슴에 저미어 왔다. 그는 몸부림치며 외쳤다. "아아~~, 내가 저 못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짙은 상상(想像)의 이야기가 깊은 교훈(教訓)을 준다.

이 땅에는 아직도 "영원"을 팔아 "잠시"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영혼"을 팔아 "육체"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팔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거래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분이다. 언젠가 예수님을 값싸게 판자들이 내가 그 때 왜 그랬을까 하며 벌벌 떨 날이 온다. "팔지 말아야 했는데----" 이런 후회의 탄식이 결코 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시관과 못,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전혀 가당치 않는 것들이 그 머리를 찌르셨고 그 손과 발에 박히셨다. 골고다 언덕을 피로 적신 엄청난 광경이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우리의 왕을 피로 물들인 가시관과 못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도구였다는 것을. 고난 주간이다. 찬양을 부른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 내셨네----"

스펄전, 그는 사실 청소년 목회자였다

젊은이를 돌보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다. 시간을 초월한 것이다



스펄전이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청소년 목사였다. 그가 목회한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 사역이 없었다. 하지만 스펄전은 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품고 자주 글을 썼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중요성과 실용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스펄전은 십대 시절에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다. 그는 글과 설교에서 일관되게 다음 세대를 고려했다. 목회자라면, 맡은 부서에 상관 없이 청소년 사역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스펄전에게서 배워야 한다.

부모의 책임

스펄전은 자녀의 신앙 형성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다. 그는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녀에게 구주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단지 예의에만 신경 쓰고,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겉만 번지르한 신앙"을 경고했다.

스펄전은 부모에게 신명기 6장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말했다. 자녀 양육의 최전선에 지속해서 복음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거나 도덕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 무엇보다 죄와 중생의 필요성에 관한 솔직한 대화가 있어야 했다. 스펄전은 이렇게 썼다. "자녀에게 너는 타고난 본성이 선하니까 발전만 좀 하면 된다는 식의 망상에 가까운 헛소리로 아첨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세요. 행여라도 자신이 죄가 없다는 식의 환상에 아이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아이에게 그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스펄전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교회의 젊은이에게까지 확대했다. 그들이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경건한 모범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격려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지혜로운 자의 입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 보십시오. 나는 진리의 종교가 모범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젊은이를 훈련하라는 부름을 받은 목회자

젊은이의 영적인 삶을 양육하는 데서 부모의 주된 역할을 강조했던 스펄전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목회자의 책임을 무시한 건 아니었다. 그는 모든 목회자가 청소년의 제자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훌륭한 교인조차도 이 사역을 맡기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른 사역이 있다고 해도, 청소년 사역이라는 거룩한 소명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스펄전은 "내 양을 먹이라"(요 21:15)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로운 그리스도인과 어린아이의 영적 양육을 우선시하라는 부르심으로 해석했다. 그는 목회자가 특히 젊은 성도에게 세심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했다. 이런 목회적 사명은 단지 신입 목회자를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목회자라면 누구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과제이다.

청소년 목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스펄전은 단순한 오락을 피하고 청소년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데 필요한 지도와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큰 격려자가 되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그들이 젊은 신자의 초기 신앙 여정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갖지 말라고 했다. 의심이나 회의 없는 영성을 키움으로써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아이를 교리로 훈련하라

스펄전에게 차세대 사역 환경의 목적은 어린아이를 단지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단순한 교리에 그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복음 교리의 학습을 우선시했다. 그에게 모든 교리는 다 어린이의 영적 발달에 필수적이었다. "왜 더 수준 높은 교리, 즉 은혜의 교리를 그들로부터 멀리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회심한 어린이에게, 단지 그가 어린이라서 너무 어려운 교리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린이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교리에 대해서 교사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사역이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강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교리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작업의 주요 부분이 될 것입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성경 · 찬송가 | 기독교의 모든 것 | 일반서적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주석, 설교, 기독교사전등 시리즈 전집류 재고
특가세일 권당 $7
뉴 욕: Tel. (718)762-0011 | 뉴저지: Tel. (201)346-0030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 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3. 논문제목: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명목상 교인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1면에서 계속〉

반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기성교회의 경우 오래되거나 습관적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혹자는 이 결과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재편 가능성도 이야기한다. 코로나 시기 동안에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들에 관심을 쏠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대형교회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명목상 교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거나, 혹은 가족에 이끌리어 수동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이들(한국형 명목상 기독교), 또는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텐돔(Christendom) 체제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서구형 명목상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창 기독교가 확산하는 곳에서도 복음의 혼합과 약화로 인한 명목상 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세계 기독교의 성장은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일부 지역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가 성장하는 만큼, 번영신학과 혼합주의 신앙의 문제도 심각하다. 얼마 전 만난 동남아 지역의 한 선교사는 그곳에서 자신이 다녀봤던 현지 교회들 대다수가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다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다. 명목상 기독교의 문제는 진정한 회심과 온전한 제자도를 위한 과제이며,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이번 한국의 명목상 기독교 조사에서는 명목상 교인들의 신앙 의식과 윤리적 삶에 주목해야 할 결과들이 있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동의 비율에서 명목상 교인들은 객관적인 교리들인 성경, 예수의 속죄, 성육신, 성령, 창조, 동정녀 탄생에 동의하는 비율이 70퍼센트 후반에서 80퍼센트 후반에까지 이르렀다. 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48.1%)이나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68.3%)에는 동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가장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38.2%)였다. 이 결과를 보면 명목상 교인들은 기독교에서 표방하는 일반적인 신앙 주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죄 문제와 하나님의 개입과 같은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못한다. 신앙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신앙 윤리와 관련된 물음에서도 명목상 교인들은 가장 관용적인 항목은 1위가 음주, 2위가 이혼, 3위가 혼전 성관계, 4위가 흡연 순으로 나왔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목상 교인과 비명목상 교인 간에 허용하는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들이 있다. 사주, 점, 풍수지리에 있어서 '해도 무방하다'는 응답 비율이 명목상 교인은 41.3퍼센트, 비명목상 교인은 7.7퍼센트로 나와서 약 5.5배 차이가 난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명목상 교인은 23.9퍼센트가 허용, 비명목상 교인은 5.3퍼센트가 허용한다고 답해서, 약 4.5배의 차이다. 제사에 대해서 무방하다는 응답도 명목상 교인은 48.7퍼센트가, 비명목상 교인은 13.9퍼센트로 나와서 약 3.5배의 차이가 난다. 이같이 실제 생활의 문제로 들어가면 명목상 교인들은 비교적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과 비교할 때 윤리관과 가치관에서 큰 괴리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명목상 교인들을 위한 사역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번 조사에서는 명목상 교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신앙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진단이다. 교회 안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작 신앙의 기초에 관해서, 즉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인 많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모임은 드물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양육은 상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특정 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복음의 기초를 갱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로 명목상 교인을 포용하는 소그룹과 같은 공동체 사역이 필요하다. 명목상 교인이 된 이들 중에는 교회 안의 구역이나 모임이 형식적이거나 이미 친하게 지내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것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셋째는 아직 신앙이 미숙하거나 자라지 못한 이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이다. 목회자들은 주로 공식적인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 교회 내의 직분자들이나 신앙의 연륜이 있는 이들 중심으로 교제권을 국한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신앙의 언저리에 있는 이들에게 목회적 돌봄이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명목상 교인에 대한 사역을 목회자가 도맡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목회자 중심주의, 성직주의는 명목상 기독교를 유발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목회적 돌봄은 전임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이 상호 유기적 체계를 이루어 교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명목상 교인들을 위한 사역의 방향으로 신앙의 기초 교육과 공동체, 그리고 세심한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이 모든 것은 은혜의 복음 선포라는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 신앙 교육과 공동체, 그리고 목회적 돌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반복되며 강조되어야 한다. 팀 켈러는 복음적 부흥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말한다(팀 켈러의 센터처치, 167). 명목상 기독교의 문제는 정교한 사역 프로그램의 설계로 해결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 회중 전체의 확신과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 때 원천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이다.

by 김선일, TGC

스펄전, 그는 사실 청소년 목회자였다

〈2면에서 계속〉

설교의 왕자라고 불린 그의 심장은 교리적 명료성에 대한 사랑으로 고동쳤고, 그리고 그 열정은 젊은이를 향한 설교로 이어졌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는지 … 은혜의 교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곧 당신에 대한 공격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판금 갑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중요하고 교육이 뒷전으로 밀린 미국 교회는 스펄전의 가르침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부모의 의도, 목회적 돌봄, 청소년의 건전한 교리 교육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일 때 학생들은 주님에 대한 지식과 열심에서 자랄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 사역자의 모델

사역이 분명하게 구분된 시대에는 내가 맡은 교인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스펄전은 목회자라면 모든 교인을 다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방위에 걸친 스펄전의 목양과 교리 교육은 우리에게 훌륭한 역사적 모델이 된다. 모든 지역 교회 목사와 장로는 자신이 돌보는 청소년을 (다른 사람이 목회할) 내일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내가 목회하는 교회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부모를 목양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녀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동역해야 한다. 그렇기에 설교는 단지 어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회 철학이 가능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에 직접 뛰어들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만 한다. 격려가 필요한 십대, 어려움을 겪는 십대, 교리 교육을 받는 새 신자 어린이, 그리고 신앙 간증이 가능한 성숙한 청소년을 찾아라. 그들에게 성경의 깊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 당신이 씨름하는 수준 높은 신학 개념을 절실히 듣고 싶어 하는 5세, 10세, 그리고 15세 어린이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놓고 고민하라.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 전임 청소년 목사라는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전폭 지원하고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라.

젊은이를 돌보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다. 시간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스펄전의 지침을 따르자. 당신의 사역 타이틀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목사라면 맡은 부서와 관계없이 교회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by Will Standridge, TGC

시 론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인가?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이번 달에 내가 속한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교협)에는 큰 슬픔이 있었다. 회장인 박재만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박 목사는 작년 3월경에 대장암 4기로 진단을 받았다. 박 목사는 암을 진단받고도 흔들림이 없었다. 자신이 하던 목회 일을 꾸준히 하였고 교협 사역에도 열심을 냈다. 그러면서 나름 치료에 힘을 쏟았다. 놀랍게도 11월에는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다. 올해 교협 회장직도 맡았고 나름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였다. 그런데 올해 초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임종을 하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에는 힘이 있었기에 세상을 곧 떠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존 윔버 목사가 말했듯이, 죽음으로 판명 날 때까지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옳다고 권면하였다. 그런데 이런 조언이 무색하게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불러가셨다.

박 목사와는 2014년에 처음 만났다. 그때는 내가 교협 회장일 때였다. 그 당시 월례기도회가 있어서 박 목사에게 설교를 부탁하였다. 박 목사는 대뜸 "무엇을 설교하면 좋을까요?"라고 내게 물었다. 나는 "대부분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에서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거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라는 말이 돌아왔다. 박 목사는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 때 그가 한 설교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제와 대지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는 말씀이 본문이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목회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젊어서 개척했을 때 교만하게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사랑이 제일이 아니라 믿음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믿음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교회 문을 닫게 되더라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벽에 부닥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을 열심히 사랑해 주었다고 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인들을 사랑해 주고 섬겼다고 한다. 필요하다면 교인들 라이드도 직접 해주고 부지런히 심방을 다니고 물불 안 가리고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쏟아 부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교회가 깨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하였다. 너무나 낙심이 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제일 되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이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인간이 행하는 것들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결국 목회를 하면서 오직 은혜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간증을 통해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 때가 있다. 그런데 정신 줄을 다시 붙잡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오직 은혜뿐이다. 은혜가 제일이다.

minkyungyob@gmail.com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신용카드 신학

저는 그동안 '목양실에서'를 통해 '연어 신학', '달고나 신학', '커피 한잔에 담긴 신학'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한 '신용카드 신학(?)'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혼 초, 한 백화점 신용카드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를 주겠다는 곳이 수없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수입이 없고, 신용 등급이 낮아서 웬만하면 내주는 카드 발급을 거부당했던 서글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아무에게나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신용입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사전승인(PR-APPROVED)신청서가 날아옵니다.

서명만 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신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엄중한 대가가 있습니다.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립니다.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 학자금 대출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서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기억합니다.

신용카드와 크리스천의 삶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신용 등급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을 만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채무자이고 신용불량자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신용 등급이 제로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삯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우리는 더 이상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의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용 등급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용 등급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신용 등급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시 107:9)

하지만 복음의 메신저인 우리의 신용 등급이 낮으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불신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성실함과 정직성을 믿어주면 줄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마다 최상급 신용 등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의 채무를 영단번의 제사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용 등급을 가진 크리스천이 됩시다.

푸/른/초/장

김동권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뉴저지새사람교회)

"환경에 주눅 들지 말고 믿음으로 뚫고 가라!"

디모데후서 1:3-7

포기했던 아쉬운 사람들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포기하는 인생을 선택했을까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환경 앞에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응과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진리를 말해 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은 숨 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환경이 믿음을 꽉 밟아 버립니다. 믿음이 활동을 못하도록 꽉 붙잡아 둡니다. 믿음을 메마르게 하고 믿음의 적이 바로 두려움 입니다.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은 이미 너희 부모 세대를 통해서도 있었고 지금 너를 위해 부모님들의 기도가 숨 쉬고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달싹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무기는 믿음 입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 환경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둘째, 상황에 넘어져 믿음을 뚫고 나아가라

롬 8:15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리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우리의 결심을 약화시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며 우리 믿음의 적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인식하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음을 인식합니다. 다윗이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나는 두렵다고 말함으로써 두려움을 인정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함으로 극복해 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시 56:3에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두려움을 인식한 직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라면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믿음 없는 자처럼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절박한 현실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 눈에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4년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척척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다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가다가 예측치 못했던 장애물에 부닥쳐 시간이 지연케 하는 현실도 만날 것입니다. 때론 내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묻는 다는 것은 기도 하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도 25:4절에서 "여호와여 나에게 바른 길을 보여 주시고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결코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내 기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위대한 점은 다윗이 쓴 시 25:4-5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라는 구절에서 보여준 다윗의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분의 진리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희망은 오직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뚫고 나갑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딴 길로 갔을 때조차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책임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게 아닐까요?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염려 한다고 해결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가득 차 있는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내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요셉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이들이 직면한 현실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형통케 하셨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넘치도록 합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고 오셨는지 고백 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도 모든 이들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오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직면한 상황도 형통케 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은 실패자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환경에 질질 끌려 다니면 맥 빠진 인생을 살 뿐 입니다. 얼마든지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올 한해도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뚫고 전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 합니다.

dkwonkim728@gmail.com

사람들이 환경에 마음을 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TIME TO STAND!! 이제는 함께 일어나야 할때! 다음세대 가치관 지키기 운동이 시작되다!

지난 3월 16일 토요일, 수많은 다민족들과 저희 단체는 뜨거운 예배와 찬양, 그리고 "Protect Kids of CA ACT 2024" 청원서 운동을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님)에서 가졌습니다.

행사의 공식적인 시작 시간은 2시였지만, 12시부터 이미 교회 파킹장을 가득 채운 주안에 하나된 다민족 단체들과 봉사자들의 반갑고 흥겨운 인사들이 오고 가며, Leave Our Kids Alone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이 나두라!!) 라는 의미심장한 티셔트들을 입은 학부모들 / 단체 대표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대화들이 곳곳을 활기차게 채우고 있음을 볼수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띠는 장면들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진보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치우친 공립학교들의 문란한 성교육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들과 잃어버린 학부모들의 권리를 되찾는 11월 대선때 표결을 하기 위한, Protect Kids of CA ACT 주민발의안을 위해 Set Up 된 수많은 서명운동 Table 들과 베너들이었습니다.

Protect Kids of CA ACT 2024는 돌아오는 11월 대선 투표때, 캘리포니아 주정부 ballot 에 표결하기 위한 주민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으로, 이 공식적이고 법적인 청원서운동에 동참하는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메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nough is Enough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Do Not Mess with Our Kids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지 말라)!

Leave Our Kids Alone(우리의 자녀들을 가만히 나둬라) !!

미전역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이나 워싱턴주와 거의 나란히 지난 13년간 최악의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가장 많이 내놓은 진보주의 주정부로 손꼽힐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악법들을 통과시킨 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0년 Common Core Standard 라는 미 연방정부의 교육부 지시 아래, 캘리포니아에서는 SB48 (Mark Leno-민주당 상원) 이 통과되면서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들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내용들은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성관계마저도 정상화 시키는 첫단계 내용이였습니다.

2015년에는 AB329 (Shirley Weber-민주당 하원)가 통과되면서, 학생들의 성교육은 "포괄적 성교육 Comprehensive Sex Ed) 로 한층 더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으로 바뀌며, 더 심각해진것은, 그 사이 사이에, 자녀들의 정체성과 성정체성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학부모들의 권리를 야금 야금 악법으로 앗아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강타는 바로, 2023년에 통과된, "Kidnapping Bill" 로 알려진 AB665 (Wendy Carrillo-민주당 하원) 로 법명은Minors: consent to mental health services 이지만, 결론적으로 AB665 는 학부모들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허락도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minor consent 미성년자의 허락" 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겨우 12세된 학생들마저도, 학부모에게 떨구어놓는 학교 시설로 데리고 갈수있는것을 허용한것입니다.

그외에도, 자녀들의 성정체성과 학부모들의 자녀를 지킬수있는 권리를 빼앗는 악법들이 지난 13년간 셀수없이 너무 많이 통과되어, 그동안 포르노수준의 공립학교 교육과 특별히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몸까지 뜯어고치는 성전환 과정을 학부모들 모르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황들이 늘어나면서, 이번의 TIME TO STAND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다민족 단체들은, Enough is Enough!! Leave Our Kids Alone!! 이라는 메세지를 Protect Kids of CA ACT 청원서에 서명함으로 그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지나치게 진보적으로 기울어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선포하며 승리의 길을 열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워싱턴주에서는 이미 큰 승리의 소식이 전해져서 미 전역의 눈길을 끌고있습니다.

참고로, 워싱턴주는 지난 40년이상 계속 하나의 당(민주당) 이 승리를 독차지한것으로 알려진 주정부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 13년간, 캘리포니아보다 더 반기독교적이고 진보적인 정책들을 펼진 주로 알려져있습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워싱턴에서 주지사, 주 의회의 상.하. 양원을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이 딥 블루(찐한 파란색) 주로 알려진 민주당의 텃밭에서 어느 한 풀뿌리 단체가 자신들만의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은 케이스가 미전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Let's Go Washington을 소개합니다.

Let's Go Washington은 보수적이고 성경적적인 풀뿌리 단체로서, 지금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하듯이, 주민발의안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올 3월 초, 공화당이 지지하는 발의안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압력을 받은 워싱턴 주 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한 후 6개 법안 중 놀랍게도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안은 이제 90일 이내에 법으로 발효될 예정이라는 기쁜 승리의 소식입니다!

청문회를 거쳐 통과된 법안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경찰 추격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그동안은 워싱턴 주나 캘리포니아 주나 경찰이 범법자를 추격하는 것에 많은 규제가 있어서 알면서도 잡지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세번째 통과된 법안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수업 커리큘럼, 도서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할 권리를 부여하고,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3번째로 통과된 법안은 세금에 관한 것으로 주, 카운티, 시 또는 기타 관할 구역에서 일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머지 세개의 이니셔티브는 워싱턴주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폐지와, 워싱턴 주민들이 주 정부의 장기 의료 보험 프로그램에서 탈퇴 허용, 마지막으로, 자본 이득 소득에 대한 주정부 세금을 폐지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제 친구 중에는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는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요? 그리고 계 20장 15절에서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알고 싶습니다.

-실비치의 정권사가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A: 라틴어의 유명한 명언 중에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할 때 전차 뒤에 탑승한 사람이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 말을 새기도록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교훈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 하늘의 예루살렘 즉 셋째 하늘인 천국으로 가지만 불신자는 죽으면 음부(sheol, 스올) 라는 곳으로 갑니다. 시 9:17 "악인들은 음부(스올)로 돌아감이여" 음부란 단어는 구덩이로 구약에서 60번 정도 나오는데 무덤 혹은 지옥으로 해석되는데 헬라어로는 하데스로 번역이 됩니다. 이곳은 고통과 불꽃의 장소입니다. 정신적으로 그 영혼이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옥(Hell)이 가장 휼륭한 번역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스올이란 장소는 천국 밑인데 피할 곳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의 초기 지도자였던 버트란드 럿셀이란 목사는 "이 지옥이란 소름이 끼치는 교리는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교회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집어넣을 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지옥은 성경이 수 십번에 걸치도록 강조하는 실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있어? 하고 말하나 지옥은 존재합니다. 예수 믿지않고 죽으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 스올, 음부입니다. 예수 믿지않고 죽으면 얼마 못 가서 이 스올에서 눈을 뜹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권능 목사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매일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천국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지옥이란 장소를 헬라어로 2개로 사용합니다.

첫째가 하데스(Hades) 입니다. 신약에서 10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악인들이 가는 영혼들의 지옥의 거처를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다 죽게 되면 몸이 죽은 후에 바로 그 영혼이 빠져나와 하데스 즉 지옥으로 가서 예수 재림 전까지 하데스란 곳에서 정신적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두번째가 게헨나(Gehenna)입니다. 신약에서 12번 사용된 말로서 게헨나는 원래 힌놈의 땅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쓰레기나 시체나 우상을 버린 곳인데 끊임없이 쓰레기를 소각하여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재림 후에 심판 때에 악인들의 육신이 부활할 때 영혼과 육신이 함께 거할 지옥의 처소 즉 불못을 가리킵니다. (Lake of Fire)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막 9:43절에 말했고 마 8:12절은 캄캄한 흑암이 있는 곳이요 바깥 어두움의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않고 흑암의 영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아래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 수정같은 맑은 유리바다의 천국과 대조됩니다. 불신 영혼들이 죽어 그 영혼이 하데스라는 곳에서 정신적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죽었던 몸이 부활하면 몸과 영혼이 함께 만나 둘째 사망인 지옥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가는 곳을 게헨나(지옥의 불못)라고 말한다. 그곳은 계 20:10절을 보면 불과 유황불이 붙는 곳입니다. 계 20:15절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다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끝이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베드로 진서 19

한 목회자의 애송 시조

40여년의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신 한 목사님은 목회가 어려웠고 갈등과 고뇌 사이에 힘들 때 종종 시조 두 편을 외우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면구스러우신 듯 목사가 어려울 때 성구를 외웠어야 하는데 하시며 하나는 정몽주의 시로 "단심가"였다. "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목회의 어려움 속에서 내 성질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죽자, 죽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회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시면서 늘 죽자 죽자 하셨다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 않겠는가. 목회자의 자세는 항상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시조였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하여가"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뭔 주의니 주장이니 내세울 것인가? 목사님이 이 시조 역시 애송하신 것은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나고 목사님의 목회관과 부닥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생겼지만 그러다가 교회가 깨어질까?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질까? 우려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자신을 포기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신이었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참으셨다고 한다.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같은 시대의 두 인물, 정몽주와 이방원. 이들의 시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대립되고 있지만 목사님은 목회자의 자세로 40여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진리 문제에서 그릇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세는 항상 모두에게 져주고 교회와 성도의 평안을 비는 목회를 했다고 자부하셨다. 그래서 그 세월을 견디셨는가 보다.

revpeterk@hotmail.com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목 사 □
	영어:	평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생명'을 '삶'으로

지난 한 주 내게 너무 큰 영감과 은혜를 준 사람을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다.

그분의 이름은 폴 알렉산더 Paul Alexander이며,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3월 11일 월요일 78세로 고인이 된 남성이다. 미국과 한국, 전 세계의 모든 일간지와 뉴스매체를 통해 그의 죽음과 생에 관한 기사와 뉴스가 올라왔다. 기사 내용은 한 인간의 강한 삶에 대한 의지와 존귀한 삶에 관한 내용이었고, 모든 기사는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별히 Christian Post의 3월 13일 그를 기리는 기사 제목 〈Paul Alexander, confined 72 years in iron lung, spoke of 'God's love' before death〉과 함께 실린 그와 그의 가족들이 신앙인으로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함께 이겨 낸 이야기는 고난주간을 지나는 나에게 너무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었다.

알렉산더는 1952년, 6살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이 마비됐다.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자 알렉산더는 인공호흡기의 일종인 '철제 폐(iron lung)'에 들어가 치료받게 됐다. 이 기계는 목 아래 신체를 철제 용기에 넣고 음압을 간헐적으로 걸어 폐를 부풀게 하는 인공호흡장치다. 상태가 악화돼 철제 폐 밖에서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소년 시절 그는 학업에 대한 열정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입에 붓이나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으며, 철제 폐 밖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훈련을 하면서 끝내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4~6시간을 철제 폐 밖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그는 1978년 텍사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1984년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했다. 알렉산더는 마비된 몸을 지탱하는 특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고, 사무실이나 집에서는 철제 폐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호사 활동을 이어갔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호흡이 힘들어진 그는 다시 철제 폐로 돌아왔다. 그는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8년에 걸쳐 자서전을 출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철제 통 안에서 '72년의 기적'…소아마비 폴, 세상 떠났다/중앙일보]

그의 기사를 통해 철제 폐(iron lung)라는 의료기구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 소아마비가 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신체 내 장기들까지 심각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모든 기사와 글들을 통해 기자들이나 나를 포함한 독자들이 느끼는 감동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엄함을 스스로 지켜내는 의지와 삶에 대한 노력, 포기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어려움 속에 삶의 의지를 쉽게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아쉬운 기사를 쉽게 접하는 이때에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값진 삶으로 만들어 간 폴의 여정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린다. 그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인터뷰는 그를 굉장히 유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즐겁게 만드는 밝고 긍정적이며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에게 웃음이나 행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진들에서 어둡고 무거운 커다란 철제통에 들어간 몸과 어울리지 않는 익살스럽고 유쾌한 얼굴로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그림과 글을 쓰는 모습이다.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아버지를 떠올리는 그의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역경을 이겨내게 했다고 얘기했다. 폴 알렉산더 자신도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셨고,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한다.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 그와 그의 부모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일 것이다. 나를 창조하신 생명.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 그렇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냈고 승리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고난을…. 또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생각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온전히 폴 알렉산더처럼 삶으로, 그의 가족들처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러워질 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songjo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난 성 소수자" 로 규정하는 미 Z세대… 차금법 폐해 고스란히

미국 20대에 해당하는 Z세대(1997~2004년생)가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자신을 성 소수자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청년세대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회를 떠난 다음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진 채 성 정체성 혼란마저 겪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팽배하다.

미국 설문조사기관인 공공종교조사기관(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PRRI)은 지난 1월 'Z세대의 28%가 자신을 LGBTQ로 인식한다'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간 13~65세 6616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15%가 자신을 양성애자로 인식한다고 했고, 5%는 레즈비언 혹은 게이로, 8%는 기타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규정했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통칭하는 단어다. PRRI는 다양한 성소수자 응답을 모두 더해 Z세대 28%가 자신을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멜리사 덱먼 PRRI 대표는 "Z세대가 다른 나이 든 세대에 비교해 LGBTQ에 친숙한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Z세대 LGBTQ 인식률은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 전체 LGBTQ 인식률(10%)에 거의 3배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차이는 벌어졌다. 이는 4%에 그친 베이비붐세대(1946~1964년 출생)와 침묵세대(1945년 이전 출생)의 7배, X세대(1965~1980년 출생) 7%의 4배에 달했으며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 16%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마저 동성혼 합법화 성큼… 아시아 성오염 쓰나미 '경보'

일본 법원이 잇따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이 일본의 최상급 법원인 최고재판소까지 유지될 경우 일본은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동성혼 관련 입법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한국도 성오염(성혁명) 파도가 거세지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 재판부는 동성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최초 판결이다. 다만 1인당 100만엔(약 8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동성혼 추진 시민단체인 메리지포올재팬(Marriage for All Japan)은 2019년 2월부터 삿포로와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곳 지방재판소에 동성혼 불인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2021년 3월 일본 최초로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의 동성혼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심상치 않은 기류로 읽힌다. 2019년 5월 대만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네팔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허용했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일본 법원의 위헌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동성혼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은 입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환자 위한 기도=불법" 최종 승인 앞둔 인도… 교계 우려 목소리

인도에서 아픈 사람을 위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기독교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현지 교계가 우려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는 11일 인도 북동부 아삼주 주의원 126명이 지난달 26일 주의회에서 '비과학적 치유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비준을 거쳐 정식 통과되는 이 법안에는 질병이나 장애, 건강 등 인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이뤄졌던 치유 관행이나 마법적 치유를 금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5년이나 10만 루피(15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에는 치유 관행이 기독교와 관련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인도의 힌두교 우익 단체들은 교회가 아픈 사람을 위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두고 미신을 조장하고 속임수로 개종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아삼주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주총리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아삼 지역의 전도를 억제하고 싶다"며 "치유 금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삼주 교회연합기관인 아삼기독교포럼은 이번 법안을 종교자유 침해라고 규탄했다. 또 기도 등 신앙 행위를 '마법적 치유'로 규정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신앙과 삶의 심오한 영적 차원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삼주와 이웃한 나갈랜드주 침례교회협의회도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다"며 "기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을 해체하고 있어요

〈1면에서 계속〉

1. 하나님 형상의 소유자로서 해체자

믿음을 해체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왜냐하면 그건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이, 인종, 성별, 성적 매력, 사회 지위와 관계없이 해체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창 1:27).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사랑, 존엄,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

2. 죄인으로서의 해체자

죄는 인간의 관계, 욕망, 감정, 심지어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죄성이란 게 우리가 죄를 짓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냥 선반에 앉아서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지 않다. 죄성은 우리 곁을 떠나는 법이 없다. 따라서 해체는 결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다. 좋든 싫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행실을 죽이라"(롬 8:13)고 상기시킨다.

3. 구도자로서의 해체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롬 2:6-8). 바울이 사람들을 자기 추구자와 진리 추구자의 두 그룹으로 분류한 것에 주목하라.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고 말했다(막 15:32). 그건 증거를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증할 만한 많은 증거를 이미 제시하셨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데에 있지 않았다. 그 모든 증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다.

4. 포로로서의 해체자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행하게"(딤후 2:26)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사탄이 사용하는 올무 중 하나가 속임수이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골 2:8).

안타깝게도 해체주의 온라인 공간에는 잘못된 생각이 많이 전파되고 있다. #deconstruction 및 #exvangelical 태그가 붙은 수십만 개의 게시물을 스크롤해 보라.

예를 들어, 한 해체론자는"#EvangelicalismIsUnreformable, 이걸 어떤 식으로 파악하든지 어린이 희생이 세상을 구했다는 게 주된 믿음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것은 기독교에 관한 완전한 오해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진리로 반응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엡 6:11, 14).

5. 반역자로서의 해체자

해체자 대다수가 거짓 사상의 포로인 반면에 일부는 단순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롬 1:18)을 묘사한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억압한다. 같은 편지 뒷부분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함이니라"(롬 8:7)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체는 자기 통치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주권자이신 주님께 무릎 꿇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 어느 한 솔직한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해체를 이렇게 요약한다.

내가 해체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대가 내 자존감, 내 선택 또는 내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지 않는다. 내게는 하나님도 사람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나만 있으면 된다.

해체자를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지금 해체의 과정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일단 분류부터 해야한다. 그게 바로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응급실에 몰려들 때 병원에서 하는 일이다. 의사는 각 부상을 평가하고 긴급한 순서대로 치료한다. 천공된 폐는 부러진 손목보다 더 먼저 치료를 받는다.

증거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이 마음을 바꿀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해체자들에게는 증거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다.

따라서 해체의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긴급한 상황부터 먼저 대응해야 한다. 해체주의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원죄, 형벌적 속죄, 지옥 교리 등)가 유해 것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안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건 당신이 해체자의 삶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가장 긴급한 필요는 관계의 유지일 수도 있다.

일단 소통의 문이 열려 있다면 해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해체자를 묘사하는 다양한 방식, 즉 형상 소유자, 죄인, 구도자, 포로, 반역자를 기억하라. 이 중에서 어떤 측면이 그로 하여금 해체를 주도하도록 하는지 분별하라. 해체자의 관점을 이해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서 그에게 진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결코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굳은 마음도 열어주실 수 있다.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 않다. 관계를 추구하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며, 기도에 시간을 쏟는 것이야말로 해체자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 사도행전 16:14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말한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by Alisa Childers·Tim Barnett, TGC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5)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 칼 바르트 (Karl Barth)와 신정통주의 (Neo-orthodoxy) (5)

(6) 결론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 (계시)를 객관적, 역사적이며, 명제적으로 (Propositional) 표현할 수 있는 정통신학에 대항하여 주관적으로 바꾸었다. 신정통주의에 의하면 계시는 만남이며, 체험이다. 계시는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도약(leap)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남이 없다면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칼 바르트의 신학의 기초는 실존주의 철학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를 너무 강조하여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자연 혹은 일반계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르트는 롬 1장과 행 14:17에 나타난 일반계시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 (the history of salvation for every man)라고 했고, 구원의 원(circle of salvation)이 너무커서 불교, 유교, 일본의 신도교도 (Shintoists)까지 포함하며, 선택과 유기의 경계선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Harvie M. Conn, Contemporary World Theology, p. 24).

이러한 바르트의 사상은 보편적 구원설 (universal salvation)을 주장하는 느낌을 받는다. 바르트의 이러한 입장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그가 말하는 구원과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성경적이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적인 입장이다.

Ⅱ. 불트만의 양식비평 (Form Criticism)과 비신화화 (非神話化/demythologization) (1)

양식비평(Form criticism)이란 성경의 본문들을 문학적인 패턴(장르의 다양한 양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형태들을 추적하는 성서비평학의 방법이다. 양식비평을 통해 본문의 본래형식와 문학전통의 역사적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다. 양식비평은 원래 구약연구를 위하여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 게하르트 폰 라드(Gerhard von Rad)와 같은 학자들이 구전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문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루돌프 불트만은 양식비평을 신약복음서를 해석하는데 적용하였다.

불트만의 양식비판의 전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생애와 메시지의 대부분은 참된 것이 못되며(not authentic), 초대교회의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에 의해 만들어졌다"이다. 그러므로 불트만의 성경관은 "성경은 객관적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없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성경은 고대사회의 종교적인 사물이며, 그러므로 다른 종교적인 문서와 동일하게 평가해야한다."

불트만의 성경관은 헤르만 리더보스 (Herman N. Ridderbos)의 불트만 (Bultmann, International library of philosophy and theology. Modern thinkers' series,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60, pp. 10-14)에 잘 설명되어져있다.

양식비평의 대 전제는 "복음서는 초대교회의 편집의 산물이다" (The Gospels are primarily products of the editing work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이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당시에 존재한 여러 가지 구전들을 (oral traditions) 모아 편집하였다고 주장한다.

간하배 교수는 양식 비평을 다음과 같이 바르게 비판한다.

1) 양식비평은 복음서 저자들을 부당하게 취급한다. 그들은 공관복음의 저자들을 단순히 문서 편집자(mere editors)들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을 진실되고 참되게 증언한다. 공관복음의 주제와 메시지는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지 아니한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메시지의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구조를 통해 동일한 메시지 (그리스도와 참된복음)를 전한다.

2) 양식 비평은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킨다. 그들은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기독교)가 편집해서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약의 메시지(복음서)는 교회가 편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진실되게 증언한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성경을 편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원 저자이시다 (고전 4:1-2; 고후 4:5). 교회가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서)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기독교)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 없다.

3) 양식 비평은 역사적으로 비상식적이다.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때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예수님의 생애의 목격자들은 많이 생존하고 있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당시에 존재하는 구전들과 신화들을 수집, 편집할 시간이 없었다. 당시에 예수님의 생애의 메시지와 사역은 모두 공개되어졌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들을 본 그대로 참되게 기록하였다 (Harvie M. Conn, Contemporary world theology. pp.28-32). 만약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잘못 기록했다면, 당시의 많은 증인들에게 큰 반대를 당했을 것이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참되게, 진실되게 기록하였다.

불트만은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서에 있는 기적과 같은 신화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udolf Bultmann,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 불트만은 신약성경이 신화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했다고 주장한다(New Testament and Mythology, 1941).

불트만에 따르면 신약에 나타난 기적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신화와 같은 것들이며, 당시에 존재하는 신화나 구전 (oral traditions) 들은 그들의 신앙이나 실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본문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본문 (텍스트)을 실존적으로 해석해야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불트만의 비신화화 (非神話化/demythologization) 이다.

불트만에 의하면 신화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진 꾸민 이야기이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기적) 기록들을 모두 신화로 돌린다. 즉 성경의 기적들은 역사 속에 진실로 발생된 사건들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불트만은 신화를 인간적인 개념 (자연적)속에서 신적인 것 (초자연적)을 묘사하는 것이며, 유한한 것 (자연적)을 통하여 영원한 (초자연적)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불트만은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을 신화로 본다.

불트만에게는 어떤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혹은 신화인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역사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에게 진정한 실존적 해답을 찾을 길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었다. 아무리 신화적인 이야기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실존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케리그마이며, 진정한 메시지라고 주장한다.

불트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현대인은 성경의 신화를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대인은 과학적 세계를 믿고, 아프면 약을 먹지 초자연적 신화와 같은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1세기 유대인의 세계관은 삼층적 우주관이었다고 한다. 즉 우주는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지옥의 삼층 구조로 된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이러한 원시적 우주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 신약의 신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과학적 우주관을 가진 현대인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약의 신화를 '비신화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트만에게 '신화'는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자들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신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트만은 신화를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실존적이며, 신앙적인 자기들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성경에서 진정한 실존적 해답을 얻기 위해서 원시적 세계관에 의해 주어진 성경의 신화적 내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신화화 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비신화화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맞는 형태의 바른 실존적인 메시지, 즉 케리그마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신약의 메시지를 재구성하거나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에워싼 신화를 벗기고 참된 (authentic) 케리그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케리그마, Kerygma,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를 가리킨다).

KHL0206@gmail.com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 6:00(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 요 저 녁 예 배: 오후 8:00
금 요 기 도 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냉수 한 그릇(A Cup of Cold Water)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아무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따뜻한 사랑뿐이라고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빵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빵 하나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제자를 뽑으시고 훈련시키신 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열두제자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사명을 받아 대사로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전도자를 영접하라**(Welcome the Evangelist)(마 10:40)고 하십니다. 영접이란 '환영하며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낸 전도자들을 환영하며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전도자나 성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 전도자를 파송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여받아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분신이요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종이나 대리인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요 분신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두번째 사역자를 잘 대접하라(Treat Ministers Well)(마 10:41) 사역자를 받아들이고 잘 대접하면 사역자가 받을 상을 같이 받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암 케리가 내가 갱도로 내려갈 테니 너희들은 로프를 잡아 달라 기도로 로프를 잡고 단기 선교로 로프를 잡고 격려 편지로 로프를 잡고 물질로 로프를 잡아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저 깊은 갱도 속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단단한 로프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목회자를 돕는다면 여러분도 다 목회자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기도와 물질로 나가는 선교사를 돕는다면 여러분도 선교사의 상을 같이 받습니다.

세번째 가능한 것으로 섬기라(Serve with What You Can)(마 10:42) 사역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습니다. 라운드 폴 공이라는 한 성을 다스리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공작에게는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금잔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운드 폴 공은 그 금잔을 찾기 위해서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체리티(Charity)! 도와주세요. 불쌍한 거지가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라운드 폴 공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언짢아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거룩한 일을 막 시작하려는 마당에 웬 거지가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가지고 나간 돈도 다 떨어지고 화려했던 옷도 남루한 옷같이 됐습니다. 라운드 폴 공은 초라한 모습으로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거지가 체리티!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하고 적선을 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오래전 성문을 나설 때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됐습니다. 그의 모습이나 자신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라운드 폴 공 공작은 짐 보따리에서 먹다 남은 빵 한 조각을 꺼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목이 메일 것 같았습니다. 라운드 폴 공 공작은 물을 떠주기 위해 말에서 내려 성문 옆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얼음을 깨고 옆구리에 찼던 표주박으로 물을 떠다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지가 물을 마시고 있는 표주박이 바로 라운드 폴 공이 일평생 찼던 주님의 금잔이었습니다. 표주박이 금잔으로 바뀐 것입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라운드 폴 공 공작은 창고를 열고 먹을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금잔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냉수 한 그릇으로 섬길 때 그게 주님의 금잔이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Provide What's Needed)(마 10:42) 목이 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냉수 한 그릇입니다. 목이 타는 사람에게는 오직 냉수 한 그릇 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예수님이 뛰어나오시면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고생한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러 아름답고 찬란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에 같은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들이 연회석 중앙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저 집사들이 탕수육을 먹을 정도면 나는 갖가지 세트 요리 해삼탕 깐풍기 라조기 등을 먹겠지 하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윽고 요리가 나왔는데 보니까 자장면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장로님은 화가 나서 예수님, 장로인 저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너 네 교회 목사는 점심도 못 먹고 자장면 배달 나갔다.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사역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계속 대접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힘들어서 죽어가며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잘 섬기는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7)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회'중에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 (교회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회의)'라고 하는 말을 얼핏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회의라는 의미이겠지요. 저희 한 부모 모임도 적은 수지만 몇몇 분과 중요 결정을 위해 의논하는 시간이 있는데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여 년간 거의 한 달에 한번은 만나서 예배를 드렸건만 서로의 방향이 이토록 어긋나는가 하며 답답해하던 중 문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혹은 어려서부터 굳어진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외향성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먹을수록 타고난 성향의 깊이가 더해져,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회가 되면 그냥 밖으로 나가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물질에 대해 납득이 어려울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재물의 유무를 떠나 같은 품목의 물건을 수시로 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를 더한다면 일단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류에 비해 무조건 '좋다, 맞다'라고 하는 분. '사람이란 이토록 다르고 또 변하고, 이렇게 어려운거구나'를 새삼 깨달으며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비신앙적이 아닌 한, 최선을 다해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 남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떨지 늘 돌아봐야 될 것을 다짐해 봤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한부모사역의 인도자는 싱글남성이 이끌어 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 재혼하여 아내와 함께 이 사역을 하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결국 싱글여성 목회자가 가장 보편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씀준비와 함께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리저리 부딪치며 마음의 벽이 쌓여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스스로에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막 13:13)라는 말씀도 있지. 그냥 이 자리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섬기는 거야"라며 자신을 다독였을 때,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하듯이 들려온 것은 '사랑은?'이었습니다. 사랑의 봉사와 말씀전함은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정신이 번쩍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삼가라(마 10:17)"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사명감당일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참고… (고전 13:3,4)"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부모 모임 인도자들께서는 아픔도 크고 외로움도 클 수 있겠지만, 참가자들과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된 관계를 유지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참된 영광의 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런던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돌아오는데, 그 개선하는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구름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게는 영국의 엘리자벳여왕과 국무대신들도 있었습니다. 개선하는 군인들은 육군부터 시작해서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 순으로 지나가는데, 맨 나중에 조그만 부대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 부대는 전쟁터에서 팔이나 다리 혹은 눈이나 신체의 일부를 잃고 기부스를 하거나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부대가 지나갈 때 갑자기 엘리자벳 여왕이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신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여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몸바쳐 싸운 그 병사들을 향해 여왕은 뜨거운 눈물의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훗날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6-8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에서 얻는 영광이요, 버림으로 얻는 영광입니다.

서울 한강 인도교가 놓인 중지도엔 하늘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는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원등 상사의 동상입니다. 1966년 2월 4일 이원등 중사가 부하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고공낙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차례로 비행기에서 뛰어 내리는데, 한 병사가 뛰어내려서는 그만 중심을 잃고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즉시 이원등 중사는 비행기에서 몸을 날려 그 병사 곁으로 사선을 그으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병사의 낙하산을 펴주었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오른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원등 중사가 자신의 낙하산을 펴려고 할 때는 이미 지상과 너무 가까운 거리가 되어 그만 차가운 한강 얼음위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부하를 살린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여 동상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지나갈 때마다 이원등 중사를 생각하고 감동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앉으려고 싸우는 영광의 자리는 이긴 자의 영광, 지배자의 영광, 섬김받으려는 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올라가려 합니다. 자기 영광을 누리려는 자리는 지금 만원입니다. 한 번 앉으면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영원한 영광,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songkpak@hotmail.com

인/터/뷰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라크마 챔버 코랄이 인도하는 사순절 찬양집회

라크마 챔버 코랄(음악감독 윤임상 교수)이 인도하는 사순절 찬양집회가 열린다.

지난 12년 동안 매 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다민족 연주자들과 함께 우정과, 평화, 그리고 한국의 얼을 알리는 행사를 해 오고 있는 라크마(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는 올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24일) 오후 5시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그리스도 수난의 현장에 담긴 십자가 사랑을 음악과 영상으로 전달한다.

지난해 OC영락교회에서 열린 찬양집회.

윤임상 교수는 "올 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에는 한길교회(고광선 목사 시무)에서 고난주간(Holy Week)을 준비하며 "십자가" 그리스도 수난의 현장에 담긴 십자가 사랑을 좀 더 가까이 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의미 있는 찬양집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윤교수는 "라크마 챔버 코랄의 사순절 찬양집회의 프로그램을 총 3섹션으로 진행 된다"고 소개하며 "I. 경배와 찬양, II. 십자가 그 수난의 현장들, III. 인도와 보호"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의미 있는 찬양집회가 될 것"

△ 1부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arr. 이현철)와 'You are Mine'(Mark Hayes)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의 찬양을 드린다.

△ 2부에서는 십자가 그 수난의 현장들을 "거기 너 있었는가"(박지훈) 찬양을 통해 우리를 수난의 현장으로 초대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며 수난의 현장으로 나아간다. 첫 번째 현장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인간 예수님의 번뇌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음악을 통해 절묘하게 묘사한다. 두 번째 현장은 빌라도 법정이다. 찬양 "어린양의 침묵"을 통해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문받으시는 장면, 그 가운데 아무 대답 없으신 모습을 표현하며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장은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수난의 길이다. "십자가(고난의 길)"라는 곡(조성은)은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여정을 내딛는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뜨거운 땀방울 속에 나타난 깊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 현장은 골고다 언덕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 달려 죽은 십자가"(W. Gather)라는 찬양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테너 오위영의 독창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는 "험한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것만 붙들겠습니다."라고 함께 다짐하며 모든 수난의 현장의 막을 내린다.

△ 3부에서는 김에스더 라크마 부지휘자가 바톤을 이어받아 "인도와 보호"라는 주제로 "너는 내것이라"(진선미)와 "주안에 있는 나에게"(양재훈) 찬양으로 전달된다.

이어 마지막으로 다시 윤임상 음악 감독의 지휘로 박지훈의 "예수"를 통해 부활을 찬양하며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주의 기도"(A. Malotte)로 찬양 집회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게 된다.

본 찬양집회를 준비하는 윤임상교수와 한길교회 스텝들은 "그리스도 수난의 현장에 담긴 십자가 사랑을 음악과 영상을 통해 느낄 수 있다"며 많은 지역사회의 성도들을 초대했다. 입장료는 무료. 자세한 것은 (323)730-0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다니엘기도회에서 오윤아 집사가 간증하고 있다

2024 미주다니엘기도회 7일간 열려

오윤아 집사,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깊은 감동 전해

2024 미주다니엘기도회(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가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에서 지난 3일(주일)부터 9일(토)까지 열렸다. 다니엘기도회는 서울 오륜교회(담임목사 주경훈)를 중심으로 전 세계 약 1만6천 교회의 동참 속에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년간 이어져 온 한국교회 초교파 기도회다.

9일(토)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에서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고전 1:27-31)'이라는 제목으로 배우 오윤아 집사가 말씀을 전했다. 오윤아 집사는 "TV프로그램인 편스토랑을 통해 아들이 사랑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장애가 있는 아들 민이는 나에게 힘든 짐이라고 생각했다.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다. 그러나 민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이 위로가 되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셔서 민이를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늘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하고 확실해진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민이가 장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10년쯤 지난 후에는 민이에게 주님이 친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시고 축복을 아이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힐링를 주는 아이로 성장했다. 지금도 힘든 순간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감당해주신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감당해주실 것이다."고 간증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미주 다니엘기도회에서 △김은호 목사(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다니엘 6:10), △이용훈 순회선교사는 '동행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능력'(출애굽기 29:46), △이용규 선교사는 '맡김의 여정'(시편 37:5),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가 '성경이 인생에 답한다'(디모데후서 3:16-17), △지선 전도사는 '결단'(에스겔 3장 5절-6),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는 '단 한 번의 인생을'(사도행전 4:12)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김명선 목사와 심형진 목사, 김윤진 간사가 찬양을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OC교계단체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도 사역을 발표했다

OC교계단체 부활절연합예배 등 2024년 사역 발표

'OC교협, 회장 잔여 임기 심상은 목사가 맡아'

오렌지카운티 교계단체(교협, 목사회, 세계어머니기도회, 여성목사회, 장로협의회, 전도회연합회, 효사랑선교회)등 오렌지카운티 교계단체들의 2024년 사역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14일(목) 오전 11시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교회협의회는, 교협 회장이었던 박재만 목사의 소천으로 임기의 잔여기간동안 회장을 맡은 심상은 목사가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심목사는 "나침반교회에서 오는 31일 5시30분에 부활절연합예배를 교계단체들과 연합하여 거룩하신 부활의 아침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며 "이날 예배는 씨드교회 권혁빈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배기호 장로가 기도, 한기홍 목사, 조봉남 한인회장, 그리고 심상은 목사가 축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서는 권혁빈 목사가 시무하는 씨드교회는 지난 2년간 OC영적각성특벽새벽기도회를 위해 해마다 3만달러씩 총 6만달러를 후원하여 개척교회 목회자를 도왔다. 이 외에도 △ 7월8일부터 10일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리는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는 선교사들을 지역 개척교회에 연결해주는 일 △ 8월1일부터 24일까지 영적각성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 △ 8월 26일(월)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 9월8일에는 사모 블레싱행사를 갖는다. ▲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는 교협과 함께 18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에서 열린 제5차 법과교회세미나를 주최한다. ▲효사랑선교회(김영찬 목사)는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매년 4월 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6월 2일에 성가 연합 합창제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한다. 하반기에는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10월 14일에 개최한다. 또한 매월 강사를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세계어머니기도회는 5월 자녀교육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9월 싱글맘자녀를 위한 행사를 갖는다. ▲여성목사회는 해마다 건강세미나를 갖고 있다. 올해는 6월경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중창단을 8월경 창단할 계획이며 음악회에 찬조출연하게 될 것이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왕의재정 부흥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는 분, 역사의 중심은 십자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왕의재정 부흥회가 '재정의 다스림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김미진 대표(NCMN)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지난 12일(화)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열린 둘째 날 세미나에서 김미진 간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라(마 6:24-3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미진 간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며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다. 역사의 중심은 십자가이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사람이 바뀌려면 첫째 성경적 역사관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 신분과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손재주, 아이디어 등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과 은사로 번 돈은 내 것이 아닌 아버지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돈을 벌던 그 돈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송종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번 부흥회는 첫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다(대상 29:11-12)', 셋째 날 '속부의 삶을 청산하고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라(눅 12:16-21)', 넷째 날 '심고 거두는 배가의 삶을 훈련하라(고후 9:6-11)', 다섯째 날 '하나님의 통큰 보상(겔 29:17-20)'이라는 제목으로 김미진 간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왕의재정부흥회에서 김미진 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동부교계 게시판

2024 벧엘 장학생 선발

벧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2024 벧엘 장학생 선발 접수를 4월 1일(월) 오후 11시59분 (미국 동부 시간)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대학생, 신대원생이며 지원방법은 온란인으로 하면 된다. https://bethelchurch.org/scholarship(우편접수 불가) 장학금 수여공지는 5월 15일경에 할 예정이다.

▲ 문의: scholarship@bethelchurch.org

ACE, 제2기 Vision Network Camp 모집

ACE(장규준 목사)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2기 Vision Network Camp를 8월 1일(목)부터 21일(수)까지 진행한다. 지원 및 추천마감일은 4월 6일(토)까지이며 캠프 참가비는 개인당 $3,000이며 참가자에게 $1,500 장학금을 지원한다.

▲ 문의: 손정훈 목사 347-654-6813, 장규준 목사 646-266-0039

제1회 뉴욕성경미술대회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제1회 뉴욕미술성경미술대회를 5월 4일(토) 2시부터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Kindergarten ~ 5th Grade이며 접수기간은 3월 15일(금)부터 4월 12일(금)까지이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80명이며 참가비는 20불이다.

▲ 문의: 718-672-1150, 917-698-3738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특별세미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박병섭 목사)는 '사역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이용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4월 15일(월)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다.

▲ 문의: 718-909-6467

뉴욕교협, 2024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2024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3월 31일 부활주일 새벽 6시에 13개 지역에서 드린다. 2024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지역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역	장소	지역장	설교자
1	Corona Woodside	뉴욕장로교회	김정길 목사	김학진 목사
2	Elmhust/Sunnyside	퀸즈한인교회	권캐더린 목사	김바나바 목사
3	Flushing 3	프라미스교회	하정민 목사	허연행 목사
4	Bayside 1	뉴욕초대교회	임영건 목사	
5	라클랜드/웨체스터/Bronx	한인동산장로교회	노성보 목사	이풍삼 목사
6	Staten Island	뉴욕성결교회	이종범 목사	이기웅 목사
7	Manhattan	메트로폴리탄 한인감리교회	김진우 목사	김진우 목사
8	Brooklyn	브클린제일교회	이윤석 목사	이윤석 목사
9	Long Island 1	뉴욕예일장로교회	이지용 목사	김종훈 목사
10	Long Island 2	아름다운교회	계재광 목사	계재광 목사
11	Long Island 3	한마음침례교회	김재룡 목사	박마이클 목사
12	Long Island 4	뉴욕성서교회	김종일 목사	김종일 목사
13	개별교회: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뉴욕효신장로교회(김광선 목사), 뉴욕순복음연합교회(정대섭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허신국 목사), 하크네시야교회(전광성 목사),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목사),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 뉴욕수정교회(황영송 목사),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목사)			

〈홍현숙 기자〉

'하우선교회' 설립 감사예배 드려

아버지학교, 청소년 사역, 가정세미나 등 사역 예정

하우선교회(대표 장동신 목사) 설립 감사예배를 3월 10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드렸다. '하우선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또는 'how to'에서 왔다. 하우선교회는 그동안 장동신 목사가 시무하던 오늘의목양교회에서 하던 선교사역에서 분립하여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고 출범하며 이날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우선교회 설립 출범식에서 1부 설립 감사예배는 사회 오명석 목사(샘솟는교회), 기도 정일권 장로(순회선교사, 시온제일교회), 성경봉독 서정학 목사(하희선교회 대표), 특송 뉴저지장로성가단, 설교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원로), 헌금기도 이규연 목사(주동행교회), 헌금특송 김승이 장로(오늘의교회), 축도 이병준 목사(한길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설립 출범식은 사회 김주동 목사(갈보리교회), 영상상영 '하우선교회의 사역내용과 방향', 출범인사 장동신 목사(하우선교회 대표, 오늘의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영상축사는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오진환 목사(필리핀보라카이한인교회), 배영만 선교사(코미디언, 안양성산교회 전파선교사) 등이 했다. 축하특송은 뉴욕크리스찬코럴이 했다. 축사는 김종국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 김동권 목사(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영길 장로(AKUS 현미연합회 총회장), 마침기도 남봉우 목사(오늘의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 목사는 "한국 군목 20년 사역과 이민목회 20년을 이어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마음으로 하우선교회를 설립하고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마쳤다. 그동안 목회와 사역에서 '잘되고 있던 일들을 중심으로 더 잘되도록 하라.'(롬 12:9-21)는 부름이 있었으며, 이 비전을 품고 선교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역 내용과 방향은 아버지 회복사역인 아버지학교, 부모와 자녀를 잇고 회복하는 청소년 사역, 가정회복을 위한 가정세미나, "뉴저지 군선교회와 동역하는 한국군장병 진중 세례식 사역", 그리고 "목회사역에서 20년 이상 이어온 홈리스 사역" 등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한인목사회, 제1차 임 · 실행위원회 사진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자"

뉴욕한인목사회, 제1차 임 · 실행위원회

뉴욕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 제1차 임·실행위원회가 3월 19일(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회무에 앞서 한준희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협동총무), 설교 박희근 목사(행사위원장), 봉헌기도 및 축도 안창의 목사(증경회장)로 진행됐다.

박희근 목사는 '내가 아끼는 것과 네가 아끼는 것! (욘 4:6-11)'의 제목을 통해 "은혜는 깨달음이다.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이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고자 부단히 힘을 쓴 그 대상이 요나"라며 요나서가 주는 교훈에 대해 말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으니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둘째,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은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았으니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관호 목사(회장) 사회로 시작된 2부 회무는 기도 장규준 목사(부서기), 총무보고 한필상 목사, 서기보고 김정길 목사, 회계보고 안경순 목사, 5개주 체육대회준비보고 이창남 목사(체육분과)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를 통해 2024년 뉴욕목사회 행사 일정 △4월: 은퇴·원로 목사 초청위로회,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세미나 △5월: 5개주 미동부 한인 목사회 체육대회 △6월: 신학세미나, 야외친교 △7월: 회원 목사 사모가정 돕기 △8월: 설교세미나 △9월: 야외친교, 종교개혁지 순방, 선거관리위원모임 △10월: 2차 실행위원모임 △11월: 성경세미나, 제53회기 정기총회 등을 보고했다. 또한 신입회원 양미림 목사, 김동욱 목사, 권영주 목사를 소개했다.

매년 5개주(뉴욕, 뉴저지, 필라, 메릴랜드, 워싱톤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이번 연도에는 5월 13일 월요일 뉴욕주에서 주최된다. 이를 위해 많은 목사님들의 참여와 후원을 부탁했다. 이날 제1차 임·실행위원회는 양미림 목사 폐회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20차 정기 총회 후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정기총회

회장 이병홍 목사, 부회장 송병기 목사

뉴욕원로목사회 20차 정기총회가 3월 14일(목) 오전 11시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열렸다. 2003년 설립된 원로목사회는 팬데믹 등 사정상 2번의 총회를 하지 못했다.

개회예배는 사회 이병홍 목사(부회장), 기도 손석구 목사, 설교 박태규 목사(뉴욕교협 회장), 헌금특송 김영환 전도사, 헌금기도 이승재 목사, 축사 정관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인사 소의섭 목사(회장), 광고 노재화 목사(서기), 축도 김용걸 신부(직전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무는 목사 14명과 사모 12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익수 목사의 기도와 회장 소의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회장은 부회장인 이병홍 목사가 회칙에 의해 자동승계를 했다. 부회장은 5인(회장, 부회장, 이성익, 정익수, 이수산 목사)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무였던 송병기 목사를 추대했으며, 감사는 김원기 목사가 유임됐다. 모두 교협 회장을 역임한 목사들이다. 총무 이승재 목사, 서기 노재화 목사, 회계 손석구 목사 등 임원진도 갖추었다.

신임 회장 이병홍 목사는 "뉴욕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협과 목사회 회장 등 여러 단체의 회장이 되었다. 비록 몸은 약하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회원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방지각 목사, "겨자씨 복음" 200회 감사예배 사진

방지각 목사, "겨자씨 복음" 200회 감사예배

방지각 목사(효신장로교회 원로)의 유투브 선교 복음 방송인 '겨자씨 복음' 200회 기념 감사예배가 3월 13일(수) 오전 11시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개최했다.

'겨자씨 복음'은 유튜브 말씀사역으로 2020년 7월부터 시작 돼 200회를 맞이했다. 이 사역은 김정길 목사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방지각 목사의 설교를 스마트 폰으로 녹음하고 녹음된 설교를 섬세하게 편집하여 유트뷰에 올림으로 복음의 소식을 세계 여러 곳에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이어 왔다. 뿐만 아니라 방지각 목사의 설교는 미주기독교방송(KCBN 이사장 윤세웅 목사)에서 매주 한 번씩 라디오 설교방송으로 전파됐다.

200회 기념 감사예배는 더나눔하우스 식구와 자원봉사자들, 교계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사회 박성원 목사, 기도 박성양 목사(극동포럼 대표), 설교 방지각 목사, 정관호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눅 16:19-31)' 제목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강조하며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고 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한인 노숙인 쉘터를 운영하는 박성원 목사는 더나눔하우스에 대해 "아침에 큐티모임과 예배, 점심 바이블리딩 예배, 오후 저녁식사 전에 찬양예배, 8시 간증예배로 하루에 네 번 예배를 드린다. 또한 개별적으로 성경필사와 바이블리딩을 한다"고 더나눔하우스의 사역을 전했다.

앞으로 겨자씨 복음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이 함께 나오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다 실감있는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욱 생동감 넘치고 진솔한 복음이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교 복음방송 "겨자씨 복음 방지각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겨자씨 복음 방지각 목사]를 입력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목사 3월 부흥성회

o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o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o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o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o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o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금) 오전 서울 능력선교교회(임은선 목사) 010-4719-5471
1(금) 오후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2(토) 오전 DHA(미연방마약단속국) 한국 Ceremony
4(월) 저녁 서울 행복이넘치는교회(김영달 목사) 010-5184-1660
5(화) 오후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의회(대표회장 목사,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 010-3443-1541 장소 :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6(수)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권능 목사) 010-2391-3004
7(목) 저녁-8(금) 오후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254-0691
9(토) 오후 서울 동노회(황규례 목사) 노회장 취임식
10(주) 밤~13(수) 제주도 한마음교회(김견수 목사) 영성수련회(대회장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14(목) 오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조찬포럼 장소 : 서울 Plaza Hotel
14(목)~15(금) 의성 호렙산기도원(원장 박미현 목사) 010-6514-7371
16(토) 오전 Special Event AM
18(월) 4시 평창 새생명교회(총회장 허은혜 목사) 010-3028-1545

제237차 해외성회(236th Overseas Assembly)
18(월)~19(화) 일본(JAPAN) 동경 예수사랑교회(정스데반 선교사)
20(수) 일본(JAPAN) 동경신학교(학장 정스데반 목사 신학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21(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예수사랑교회(김태실 선교사) 우에노공원 대중전도집회

2(금) 오전 한국기독교부흥 지도자회(장소 : 남서울중앙교회)
23(토) 오후 서울 국제신학교(이사장 강영준 목사) 특강
24(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870-5642
25(월) 오후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진철 목사) 주최 : 느헤미야부흥협의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27(수) 오후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주최 : 북한선교회(대표회장 강대호 장로)
28(목) 오전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한국사랑부흥사회(대표총재 김인기 목사) 010-5277-7593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Time to Stand 집회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Time to Stand … "동성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자"

어린이보호법 도입에 대한 홍보활동과 서명 받아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Time to Stand 집회가 'Save our Children'이라는 주제로 16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TVNEXT.org(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Gen: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 김 사모)와 Make California Gold Again - Sarah Stephens) 두 단체가 공동주최한 행사이며, 그 외 20여개가 넘는 다민족 단체 리더들이 협력하여 이뤄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 될 행사에는 이미 12시부터 200여명이 넘는 다민족 단체들과 한인 교회에서 협력자들이 나와 부스를 만들며 행사를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11월 대선 때 나오는 candidate(크리스천)들도 수십명 참석하여 Protect Kids of CA ACT 운동을 격려하며 응원했다.

TVNext 새라 김 대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잘 이겨냈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이번 집회를 위해 함께해 준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새라 스테판과 새라 김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집회는 신승훈 목사, Protect Kids California의 Detransitioner Chole Cole, Mega Praise Ministries의 Manuel Johnson 목사, Turning Point Faith의 Shaun Fredrickson가 강단에 올라 성전환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반성경적 악법을 저지하여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행사장 바깥에는 TVNext, TPUSA Faith, MOMS of the ground, Protect Kids California, LEAVE OUR KIDS ALONE, California Moms for America 등 단체들의 부스가 마련되어 이날 집회장소를 찾은 참가자들에게 캘리포니아 어린이 보호법 도입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으며 이를 위한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 2시경 LGBTQ단체 20여명이 집회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스크와 복면을 하고 나타나 집회장소인 주님의영광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 행사를 방해하지 못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건강세미나에서 이영주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월드미션대 건강세미나 개최

"치매 증상발현은 20-30년 전에 예측 가능"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간호학과(디렉터 이영주 박사) 주관 한 건강세미나가 '치매는 과연 예방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지난 12일(화) 개최됐다. 이 날 강사로 나선 이영주 간호학과 디렉터 교수는 "영어로 디멘시아(Dementia)라고 하는 치매는 하나의 질병이 아닌 증상으로 후천적인 원인 질환에 의해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없는 포괄적인 상태(증상)가 나타나며, 이러한 치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 60-80 퍼센트가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으로 여기에서치매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외에 뇌혈관 질환 치매가 5-10%, Lewy's Body disease 5-10%, 파킨슨 질환과 헌팅턴 질환 5-10%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치매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포괄적인 증상"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현재 미국 내에 680만명이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는 것으로 밝혀졌고, 매 65초마다 새로운 알츠하이머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알츠하이머는PET-CT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생성 되면서 발생되는데 PET-CT와 아폴로 리피트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알츠하이머 병을 알 수 있으며 증상발현은 길게는 20-30년 전에 예측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을 통해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녹황색 채소를 갖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충분한 수면을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한 도전의식, 다양한 사회활동과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 42회 정기노회

노회장 이훈우 목사, 부노회장 양인수 목사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 42회 노회가 12일 남가주든든한교회에서 열려 노회장 이훈우 목사, 부노회장 양인수 목사, 서기 백현 목사, 부서기 이경휘 목사, 회록서기 최태우 목사, 부회록서기 김홍철 목사, 회계 송일용 목사를 신임원으로 선출했다.

노회에 앞서 이대용 목사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기도 박대원 목사, 성경봉독 양인수 목사, 설교 이훈우 목사, 축도 조정기 목사로 진행됐다. 이훈우 목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갈1:4,2:20,6:14)의 제목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 십자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전하는 노회가 되자"고 설교했다.

이날 성찬식은 전태준 목사가 집례 했으며 백현 목사와 김홍철 목사가 성찬위원으로 섬겼다.

이어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각부 보고와 새임원선거가 있었다. 특별한 안건으로는 남가주든든한교회에서 14년 동안 시무한 김현인 목사의 시무사면청원과 위임목사 김홍철 목사의 청빙 건은 모든 형편을 고려하여 수락하기로 했으며 김홍철 목사 위임예배는 교회 상황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노회주관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노회에서 총회 상비부에 '전도부' 신설 청원을 헌의하기로 결의했다.

〈이성자 기자〉

로스엔젤레스 노회 신 임원단. 우측 첫번째가 노회장 이훈우 목사

LA기쁨의교회 춘계부흥회에서 김경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LA기쁨의교회 춘계부흥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잔칫집인생을 사는 자"

LA기쁨의교회 춘계부흥회가 김경수 목사(시카고약속의교회)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15일(금)부터 17일(주일)까지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희문 목사 인도로 17일(주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이형금 사모가 기도했으며 찬양팀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김경수 목사가 '잔치집 인생(요 2:1-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경수 목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타종교를 믿는 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잔칫집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베푸셨을까? 당신의 때도 아닌데도 말이다"라고 질문한 뒤 "주님께서 함께하신 가정, 인생은 잔치집이다. 주님께서 오심은 기쁨과 축제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잔칫집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체가 잔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우리의 삶은 부족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칫집을 원하신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인생 역시 이러한 포도주 같다. 맹물 같은 인생이 색깔이 입혀지고 맛이 더해지게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사귐을 가질수록 좋아야 한다. 허드레 일 같은 인생도 주님은 가장 좋은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김 목사가 결단의 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신임원들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고난주간 새생명 복음 치유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고난주간 새생명 복음 치유집회를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최종천 목사(꿈이있는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6시이다.

▲ 문의: (714)446-6200

베델교회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가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30분에 열린다.

▲ 문의: (949)391-9497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사랑이 된 아픔'이라는 주제로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에 드려진다. 일정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25-27일(월-수):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담임), 28-29일(목-금): 고창현 담임목사

▲ 문의: (310)618-2222

어린이전도협회 VBS &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 VBS &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4월20일(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라카나다 아름다운교회(담임 이현동 목사 104 Berkshire Pl,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에서 열린다.

▲ 문의: (213)273-5534, (213)500-7890

포틀랜드영락교회 고난주일 특별저녁기도회

포틀랜드영락교회(담임 박성하 목사)는 고난주일 특별저녁기도회를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갖는다.

▲ 문의: (503)531-8444

감사한인교회 창립 41주년 기념부흥회에서 이상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감사한인교회 창립 41주년 기념부흥회

"왜곡된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 주는 교회되길"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창립 41주년 기념부흥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이상준 목사(1516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15일(금)부터 17일(주일)까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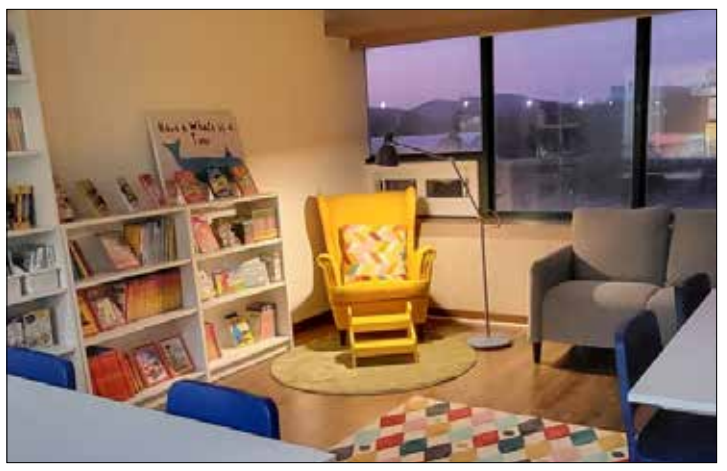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구봉주 목사 사회로 17일(주일)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최 알렉스 장로가 기도했으며 사랑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상준 목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4:3-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상준 목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수가성 여인 같은 자를 우리는 너무 빨리 부도덕한 자로 낙인을 찍는거 같다"며 "인생이란 것은 쉽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라인이 다양하지만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민자로 살면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열심히 살다보니 반목하게 되기도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 우리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모두가 부도덕한 여인이라 낙인을 찍는데 예수님만 소중하게 대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한 영혼을 건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며 "예수님께서 간절한 예배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예배당에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왜곡된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그 마음의 영적인 흡족인 기쁨을 누릴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구봉주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창립 41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임원진 발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강민석)는 2024년도 신임원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강민석 회장은 "2024년 신임임원들과 함께 올한해 계획된 사업들을 펼쳐나가려고 한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린다. 아울러 저희 협회와 함께 할 지휘, 반주, 연주 등 찬양사역자분들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2024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강민석, △부회장: 랜디 김, △총무: 김정민, △회계: 김효정, △서기: 김애영, △합창분과장: 이희성, △작곡분과장: 한지헌, △CCM분과장: 조영석 자세한 문의는 강민석 회장 (714)371-3167로 하면된다.

〈기사제공: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영어도 배우고, 선교도 하고...

동네도서관의 특별한 사명

한국에서 영어 교육만큼 가장 인기 있는 사교육이 있을까. 영어 교육에 선교를 접목한 '자이언트리딩'(대표 김기영)은 팬데믹 후 지역 사회에서 선교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교회들에 주목을 받고 있다.

'영어 가정 도서관 선교 프로젝트'로 불리는 자이언트리딩은 지난해 10월 넉넉지 않은 재정 사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역자 가정을 위해 시작된 사역이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다산 캠퍼스' 1호점을 시작으로 전남 여수, 경기도 용인 등 지금까지 4개의 영어도서관이 설립됐다. 자이언트리딩은 6세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어린이들이 영어 원서 읽기를 기반으로 영어를 배우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어교육 전문회사에서 교육 분야 전문가로 다년간 경험을 쌓아온 김기영(52) 대표는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했을까. 그는 "사역자의 자녀들이 잦은 이주와 경제적 한계 등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가슴 아픈 상황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 사역자들의 가정과 교회에 영어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영어를 배우려는 아이들이 모일 것을 기대했다. 그는 "아이들은 영어 원서를 읽으며 문해력을 키우고 무분별한 미디어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여러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 올리브 교회(조준환 목사)에 있는 영어도서관은 성도들의 특별헌금 등으로 설립됐다. 이 교회 안수집사기도 한 김 대표는 인테리어팀과 무보수로 가구 조립부터 벽면 페인팅까지 작업했다. 성도들의 정성으로 지어진 이곳은 지역 학부모들을 전도하는 통로로도 쓰임 받고 있다. 지난달 자이언트리딩의 교육 특강이 교회에서 열렸는데 그동안 교회와 접촉점이 없던 지역주민이 20여명이나 방문했다.

자이언트리딩은 사역자를 대상으로 독서지도 훈련, 영어교육 자격증 취득, 홍보 전략 등 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훈련한다. 사역자는 자신의 교회와 가정에서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영어도서관은 국내 미자립교회를 넘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해외 선교지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의 도구로 톡톡히 쓰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 일 관계, 종교를 시작으로 화해의 물결 퍼지길"

한남대 '한 · 일 간의 진정한 화해'

대전 한남대(총장 이승철)는 최근 일본 기독교공조회와 함께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를 주제로 수련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남대는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한·일 간 화해를 위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대전지역 관내 방문을 비롯한 천안독립기념관·수원 제암리교회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에서 기독교공조회 위원장인 이이지마 마코토 목사는 '한·일 수련회 개최의 의의(화해의 사명을 띠고)'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이지마 목사는 "가해자의 편에 선 일본인이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화해를 이끄는 만남으로 다져가야 한다"며 종교 안에서의 지속적인 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위안부, 징용공 문제 등 현실에 대해 역사 수정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우리 공조회가 의지하는 '그리스도 외에 자유독립'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배정열 한남대 일문학과 교수는 "대치 관계였던 한·일 관계가 종교를 시작으로 화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한·일기독공조회가 한국과 일본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공협 "러시아, 선교사 불법 구금은 인권규범 침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19일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백광순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공협은 '한국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선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보편적 인권 규범에 대한 침해이자 러시아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공협은 "러시아는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구금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개신교 선교사로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순수 선교사이자 활동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교사의 그간 활동 내용이나 경력으로 보면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 북한과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국민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구금중인 선교사의 안전 확인과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취함과 아울러 다각도로 외교적인 채널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불허' 퀴어행사…올해는 서울광장 차지하나

퀴어조직위, 지난 15일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제출

퀴어행사 주최 측이 오는 6월 카퍼레이드 등 연례행사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계가 맞대응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는 오는 6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지난해 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대신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퀴어조직위는 서울광장이 아닌 을지로2가 일대에서 퀴어행사를 강행했다.

홍호수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퀴어행사가 진행되면 맞대응 차원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오염(성혁명)으로부터 한국교회와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과 관련)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지난해 결정과 상관없이 서울시 조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퀴어행사측은 현재 대구시 측과 소송 중인 가운데 올해 행사 강행 의사를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신학생의 갈 길,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회신학대 허브학우회, '사역 박람회'

장로회신학대(총장 김운용) 허브학우회가 오는 20일부터 장신대 미스바광장에서 '사역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10년 만에 열리는 사역 박람회는 변화된 목회 패러다임에 맞춰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허브학우회 회장인 전정민 전도사는 "전통 목회에 자비량 사역을 더해 박람회 내용을 구성했다"며 "신학생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신입생에게 알려 진로 견문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를 통해 사역의 방향성을 잡은 학생들은 허브학우회가 주최하는 '나의 미래 목회 공모전'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 실현 단계를 계획할 수 있다. 자작곡 시 문학 미디어 아트 등 여러 분야로 출품이 가능하며 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팀은 교내 글로컬 현장교육원에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창의적 사역 프로젝트'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전 전도사는 "이번 사역박람회는 학생들의 일회성 진로 탐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구상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사역을 구체화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역 박람회 기간에는 '봄 신앙 사경회'도 함께 열린다. 신앙 사경회 강사로는 장신대 박동현·현요한 은퇴 교수를 비롯해 위러브 박은총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나예랑 상담심리사 등이 나선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월-금)
Tel.(213)481-2779 / t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05
주일2부 예배 : 오전 9:05
주일3부 예배 : 오전 11:05
젊 은 이 예배 : 오후 2:0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Tel.(213)700-9928 , www.elpist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풍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 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9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mission **선교의 창 (23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고난 주간

2024년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다. 금년은 3/24-30일까지이다. 고난 주간은 사순절 끝자락에 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에 비해 너무 자유롭다. 좋은 신앙이란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 예식과 절기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 주간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사건들과 사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없는 자에게는 부활도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날자 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 첫째 날: 종려주일(Palm Sunday)은 개선의 날이다 (마21:1-11, 막11:1-11, 눅19:28-38, 요12:12-15). 예수님은 십자가 수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 때에 군중들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왔다. 그리고 목청껏 "호산나"(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쳐댔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너진 다윗왕조를 일으킬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외세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패권적 왕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킬 구세주로서 오신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를 잘 암시하고 있다. 구약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언급했건만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분을 알아보지 못했다(요1:9-11).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 둘째 날: 월요일은 청결의 날이다 (마21:12-19, 막11:12-19, 눅19:45-48). 예수님은 이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다. 이어서 주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타락시킨 매매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며 그들을 몰아내고 물건들을 뒤엎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곳이 강도의 굴혈처럼 보였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였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성전을 예표한다. 건물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즉,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영이 거하는 곳이 다 성전이다 (고전 6:19). 그러므로 우리도 내주하신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늘 참회하며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셋째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다 (마21:23-24:14, 막11:20-13:37, 눅20:1-21:38, 요12:20-50). 예수님께서 이 날 가장 여러 가르침을 주셨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답을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인해 눈물 흘리셨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 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종말설교를 하였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마24:32-25:46). 내용인즉; 무화과나무의 비유,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는 비유,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할 것의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비유 등이다. 성경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줄 알 듯이 종말적 징조를 많이 언급했다. 우리는 주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가?

#.넷째 날: 수요일은 예비의 날이다 (막14:1-11). 예수님은 이날 별다른 활동 없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시며 닥쳐올 고난을 대비하고 계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룟 유다까지 끌어들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날 한 여인이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품삯에 해당됨으로 그 값은 약 3,000만원 정도의 비싼 것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그녀가 어리 섞은 짓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이미 알고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옥합을 깨뜨려 본적이 있는가?

#. 다섯째 날: 목요일은 고별의 날이다 (마26:17-26:46, 막14:12-42, 눅22:7-46, 요13:1-17:26).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기념일인 이날 저녁,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 한 집의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기념 만찬을 가졌다. 주님은 자기를 팔 가룟 유다까지도 제하지 않고 떡과 잔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멋모르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예수님은 일어나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이후 예수께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던지 땀이 땅에 떨어져 피 방울 같이 되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고별예식을 한 후 처연(凄然)하게 엎드리신 주님의 모습이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가?

#. 여섯째 날: 금요일은 죽음의 날이다 (마26:47-27:61, 막14:43-15:47, 눅22:47-23:56, 요18:1-19:42). 예수님은 이날 새벽 한 시경에 가룟 유다가 앞잡이로 끌고 온 군대와 성전관리, 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체포되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동이 틀 때까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셨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 받은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셨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지도자와 무리의 압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프레토리움 뜰 안에서 로마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침을 뱉었다. 이어서 성 밖 골고다의 형장까지 매질하며 갔다. 오전 9시경, 언덕에 십자가 형틀이 세워지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사막의 땡볕 아래 6시간 매달려 계셨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주님은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뒤 운명하셨다. 이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역사적 광경이 상상이 되는가? 진정 크리스천이라면 한끼라도 금식하며 주님의 아픔을 체휼(體恤)함이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

#. 일곱째 날: 토요일은 침묵의 날이다 (마27:62-66). 이날은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무덤에 묻혀 계셨기 때문이다. 굳이 추측해보자면 두려움, 슬픔, 고통, 절망 등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가능한 분주한 삶의 자리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묵언수행(默言修行)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십자가상의 7언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갖는다면 쉼과 위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비록 주님은 떠났어도 그 분이 남기고 간 말씀은 우리 폐부(肺腑)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1.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눅33:34). 2.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19:26~27). 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마27:46). 5. 내가 목마르다(요19:28). 6. 다 이루었다(요19:30). 7.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맺음 말

올 해도 뜻 깊은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때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한 주간을 평소 일상처럼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 뭔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나친 오락이나 잔치 등과 같이 우리 자신을 유쾌하게 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핸드폰, TV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평문화와 세상 소식들을 가능한 절제하는 것이 좋다. 더러운 오물이 담긴 그릇에 생명수를 담을 수 없지 않는가? 대신 하나님 앞에 (Coram Deo) 단독자로 서서 자아를 성찰하면 우리 영혼에 켜켜이 쌓인 적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참된 회개로 심령을 비우고 그 자리에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채운다면 은혜의 단비가 한량없이 내리지 않을까 보냐? 이 생명의 계절에 !

Jrsong007@hanmail.net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경험이 없는 자는 부활도 없다.
주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라면 고난주간을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심령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운다면 생명의 싹이 날 것이다.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1강 연합국 전투, 갈렙 그리고 안식 (3) (여호수아10-24장)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수 13:1-7).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가족에 따라 기업을 분배하고 경계를 정해줍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수 13:8-33). 이어 여호수아는 남은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도 그와같이 땅을 나누어줍니다(수 14:1-5).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은 하겠지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도, 쫓아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모두를 쫓아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때에 유다 자손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40세에 12 정탐꾼의 한명으로 정탐을 하였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것과 모세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수 14:9)고 했던 약속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45년의 시간이 지나 자신은 85세이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 14:12)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고백과 같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산지 땅을 정복합니다(수 15:13-19).

지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시점에 모두들 정복하기 쉽고 살기 좋은 땅을 원하는 때에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인, '산지 땅'을 먼저 선택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자손인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이 85세면 전투에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더욱이 산지 땅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으로 이기실 것입니다. 가나안 전투는 이와같이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전쟁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삭의 순종을 본받자'가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같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본받자,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일단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큰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정복을 하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신 20:16-18)고 하신 명령대로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유다 자손이 나아갔는데(수 15:1-63) 갈렙이 '그 산지'를 정복한 것과 달리 성경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수 15:63)고 말합니다. 또한 에브라임 자손이 나아갔는데(수 16:5-10) 성경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수 16:10)고 말합니다. 또한 므낫세 반지파가 나아갔는데(수 17:1-13) 성경은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수 17:12)고 말합니다.

2차 가나안 전쟁의 선두였던 유다 자손도 그리고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도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쫓아내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힘이 없어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그들이 분배 받은 땅이 적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그곳은 '산지이고 철병거'가 있다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수 17:18)고 합니다. 요셉 자손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인데 갈렙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삶 (눅 6:32-36) 찬 67장

육신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 주인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없는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의 것을 많이 사용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 삶에게 상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삶에 상이 있다.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빛을 많이 나타낸 삶을 산 자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주님을 나타나게 하는 삶이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사용하며 사는 것이다. 주님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살자!

화 죄의 성품, 나의 들보 (눅 6:39-42) 찬 366장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즉 영적 존재로서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즉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 상대방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티끌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죄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죄의 성품이 살아 있는 부정한자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자신 안에 있는 죄가 훨씬 크고 큰 것인데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아야 이웃에게서 나타나는 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알고 그것을 대적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수 백부장의 믿음 (눅 7:6-10) 찬 374장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에게 나아오게 하고 그 믿음을 누린 그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 먼저 예수님이 만 왕의 왕이심을 알며, 만물이 예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것을 그 질서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잘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부정한 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주인이심을 깨달았다. 백부장은 그 믿음 안에서 말 하고 행하고 있다.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의 하인을 고쳐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을 받아 마음에 품고 누리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 하시는 것이다.

목 예수님의 권세 (눅 7:12-16) 찬 23장

예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주님의 능력을 알자.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자. 모든 것이 주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알자. 죽음도 주님 안에 있어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주인이시다. 영원토록 절대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살아 있는 자도 죽은 자도 주인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죽음에서 불러내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알자. 주인을 알자 권세를 알자. 전능하심을 알자.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시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인의 뜻에 나를 포함시키신 주인이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용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 주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아야 한다. 그 권세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금 구원자이신 주님 (눅 7:21-22) 찬 170장

죄에서 사망이 오는 것이다. 주님은 죽음에서 살리는 일을 하신다. 질병에서 고통에서 악귀들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메시야가 오셨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신 것이다. 주인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일 하시며 그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신다. 주님을 위해 일 하신다. 만물은 주인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 자신도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요 주인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이시며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오늘도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토 죄를 탕감해 주신 은혜 (눅 7:36-42) 찬 211장

한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곁에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였다. 이 사실을 여인은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 된 자로 살게 된 것이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범한 죄를 알고 정죄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탕감하여 주신 분이시다.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다. 주인이 죄를 탕감하여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주님과 그 여인만 알 수 있었다. 주님께서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그 의미를 점점 더 깨닫게 되면 될 수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교회음악 이야기(55)

십자가로 가까이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지난 2021년 8월 경에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뉴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을 붕괴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 세력들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들의 무자비한 행동들로 인해 세계 사람들에게 큰 지탄을 받으며 아픔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최연소 여성 시장 자리파 가파리(Zarifa Ghafari 1994 -)와 최초의 여성 교육부 장관 랑기나 하미디(Rangina Hamidi,1978 -)라는 두 여성의 리더십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프간 여성 인권의 상징이라고 일컫는 약관 26살의 자리파는 마이단샤르 지방의 시장에 임명되면서 아프간 최초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탈레반이 아프카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날 그녀는 "나는 이곳 카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외치며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성, 랑기나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관료로 평가되고있으며 당일 아침에도 평상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요하는 직원들을 달래고 가장 마지막으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날, 그들의 대통령이었던 아슈라프 가니(Mohammad Ashraf Ghani Ahmadzai, 1949 -)는 돈으로 가득 채운 4대의 차와 부인, 참모진들을 이끌고 빛의 속도로 급히 수도 카불을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메스컴을 통해 전 세계에 대서 특필되며 이슈라프 대통령이 큰 지탄을 받고 있는 때에 이 두 여성들의 리더십이 큰 대조로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이 두 여성의 공통점은 자신의 목숨과 안위보다 자신의 조국과 사회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속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리더들이었습니다.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린 대반전 사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것이 모든 예배, 찬양, 그리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1963) 목사님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다"에서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속죄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단 한 시간도 머물고 싶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가인의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 1899-1981) 목사님은 그가 쓴 '십자가'에서 "많은 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만,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헛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일은 어떤 것이 참된 메시지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입니다"라고 서술합니다.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이 두 설교가의 공통점은 "십자가." 그것만이 기독교가 전해야 할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시로 표현해서 찬송하는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십자가로 가까이 (Jesus Keep Me Near the Cros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19세기 찬송작가 패니 크로스비(Fanny Crosby 1820-1915)가 1869년에 쓴 것으로 그녀가 출생 직후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능력의 생생한 장면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기법(hypotyposis)을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능력의 십자가를 묘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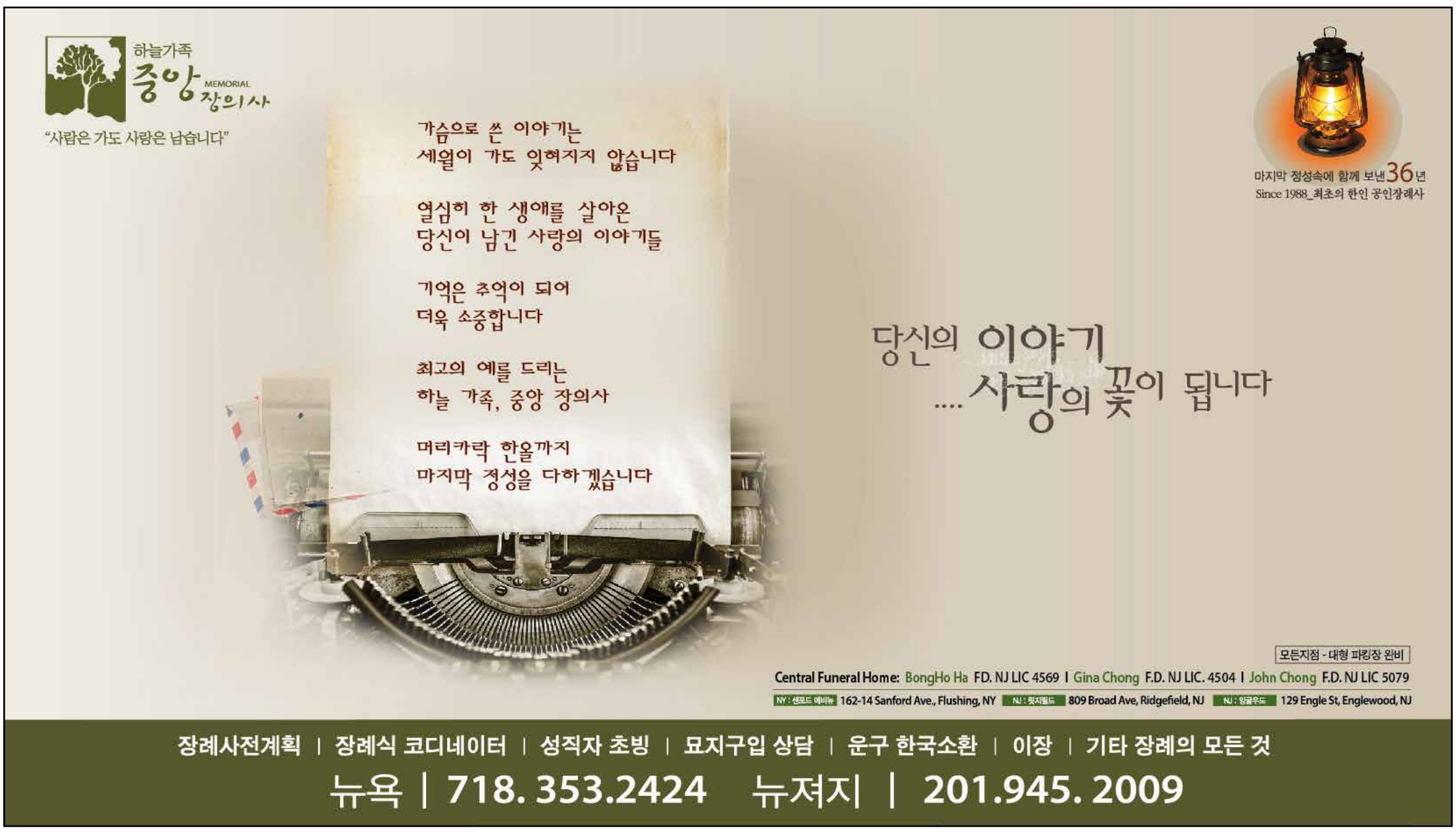
당시 에베소 교회는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에 선과 악, 영과 영의 대립 그리고 분리 사상이 너무 팽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분열되고 부조화된 사상을 만들게 된 모습을 열거하며 저자인 바울은 이 같은 현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멀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화해시킴이요 서로 간의 극명한 대립을 일삼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재자로 하나가 되게 하는 수평적 화해를 이루어 원수 된 것을 소멸하게 하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의 십자가 정신을 담은 찬송을 소재로 조성은 작곡가가 "십자가"라는 안템을 썼습니다. '치욕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작곡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곡의 내면을 보면 전반부 고통과 수난의 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을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단조를 사용하여 특유의 어둡고 호소력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리듬을 통해 무거운 발걸음을 걷는 듯 연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십자가 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장조로 변화시켜 짧게 표현하고는 간주에 멜로디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어 다시 고난의 길을 반복하여 단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짧은 간주에 이어 승리. 영광의 십자가를 장조로 전환하여 환희를 드러내며 역설의 십자가를 표현하며 종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고통의 십자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과 헌신을 보이기 이전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원한다면 치욕의 십자가 그 맛도 보아야 합니다.

물질만능의 시대, 모든 것이 점점 더 편안해져 가며 우리를 유혹하는 큰 요소는 영광의 예수님을 원하지만, 고통의 십자가는 점점 더 희미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을 마무리해 가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며 기독교가 전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가 시작이요 끝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감성과 함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히 드러나는 감격의 찬양과 예배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때 십자가는 우리 찬양의 마지막 고백처럼 "무한 영광"이라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iyoon@wmu.edu



2024 부활절 캠페인

희망친구 기아대책

〈고난, 치유와 희망〉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편 140편 12절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재난, 갈등과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치유와 희망의 소식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희망친구 미주기아대책(KAFHI)

Pay to the Order of KAFHI (Memo 부활절 캠페인)
주소 |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문의 | shchung@fh.org (703) 473-4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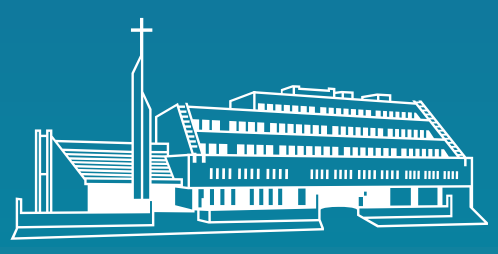
2024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임직 감사 예배

장로 안수 집사 권사

Elder,Deacon Ordination & Kwonsa Installa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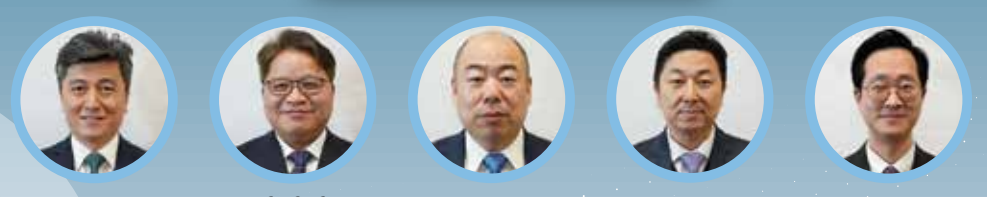
1974 2024



2024년 4월 7일 (주일) 오후 5시 퀸즈장로교회 본당

Sunday, April 7, 2024 | 5PM @KAPCQ Main Chapel

장 로 Elder



최성호 정해성 권혁민 심인보 송현규

안수집사 Ordained Dea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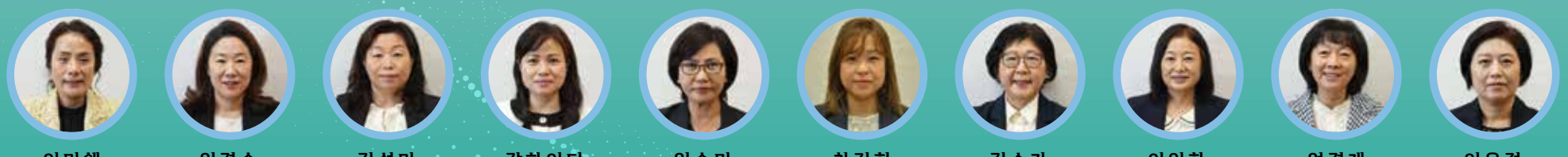
홍지혁 최치훈 송인태 문태일 조영욱 이현승 강 호 강원철 김재일

오재혁 김준래 이성용 배강원 이재운 김광남 조성순 김준영

권 사 Kwonsa

강혜영 송소영 강석춘 박경미 권향련 이송은 권정자 이경미 최경란

정희원 정소연 차문희 이혜진 황선영 오연숙 윤영란 박정희 김순례



이미쉘 임경순 김성미 강하이디 임순미 차진희 김수자 이인화 엄경재 이우정

여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